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최동호  
시인·고려대국문학과 교수

지난 16일 한국 시인 20여 명과 중국 난카이대학에서 ‘한·중 시낭송 및 세미나’가 있었다. 중국의 대학생들이 과연 한국의 시나 문학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강의장에 들어섰는데 중국 대학생들의 반응은 진지하고 무거웠다. 150여 명의 중국 학생들은 강연 내내 진지하게 듣고 있었으며 강의가 끝난 다음에 여러 학생들이 한국문학에 대해 질의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이 누구이며, 한국에 프랑스문학의 영향은 어떤 것인가, 시와 음악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등의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저녁 시간에 진행된 시낭송회 역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한국 시인들의 시 낭독을 들었고, 중국시인들 역시 그들의 시를 읽었다. 이질적인 언어와 문화가 시를 통해 만나는 순간이었다.

중국 대학생들과 한국 도깨비

그들의 호기심을 넘어선 한국 시에 대한 관심은 애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려를 단번에 불식시키는 것이었다. 중국 학생들에게서 풍겨오는 분위기에서 인터넷에 증폭되어 오늘의 한국 대학생들이 가진 호기심과는 다른 순정성이 전해져 왔다. 함께 참여한다는 시인들도 중국 학생들의 열띤 호응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다음날 60여 명의 대학원생들과 한국현대시에 대한 학술적인 세미나가 있었다. 여기서 필자는 ‘한국현대시와 도깨비’라는 제목으로 짧은 발표를 했다.

한국인들은 모두 도깨비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이 한국인의 특성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디지털적인 상황에 가장 잘 맞는 성격 중의 하나이다. 비약적이고 폭발적이며, 진취적인 한국인의 기질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역경을 기회로 21세기 비약적인 국가 발전의 원동력을 발휘한 것이다.

도깨비는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역경이라도 극복하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나의 강연의 요지였다. 물론 도깨비는 인간이 되고자 하며, 또 인간 세계에 잘잘못이 있을 때 이를 징벌하는 역할도 하는 것이 한국의 도깨비이다.

이런 이야기는 어린 시절 할머니로부터 수없이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한 것이다. 그리고 후일 일연의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상당수의 기록들은 도깨비 이야기를 적어 놓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왜 우리는 서양의 신화나 전설을 훌륭하다고 말하고 동양의 그것은 무시해 왔는가. 나는 이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눈으로 보자면 정상을 일탈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지닌 창의적 발상과 사고의 원동력이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불가사의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성과는 모두 한국인들이 지닌 이런 특성의 발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 음악계를 놀라게 한 사이의 음악은 말도깨비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국의 메이저 리그에서 최우수 선수 추신수가 휘두르는 방망이가 도깨비 방망이다. 지난 세계 스케이트 선수권에서 우승한 김연아 선수 역시 아름다운 도깨비이다.

도깨비란 어떤 존재인가. 그들은 현실과 이상 사이에 존재하는 상상의 존재들이다. 다시 말하면 가상과 현실을 매개한 중간적 존재인 것이다. 도깨비는 꿈을 꾸고, 현실을 뛰어넘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인간의 내면에 잠재된 표출되지 않은 에너지이다. 서양인들은 물론 중국인

들도 한국인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한다. 중국인이 보기에 한국인들은 마치 춘추전국시대의 고대인들이 과거에서 뛰쳐나와 한국의 드라마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을 것이다.

그러나 그 증폭성은 매우 심해서 한 번 한국의 드라마를 보고나면 다른 드라마가 시시하게 느껴질 것이다. 필자는 강연의 마지막 막을 요약했다. 한국인의 특성은 한 문장으로 집약된다. “한국인은 도깨비이고, 도깨비는 한국인이다.”

호기심 어린 눈동자로 필자의 강연을 듣고 있던 중국의 학생들 중 한 사람이 일어나 말했다. 이제야 한국인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랐지만 최소한 그들과 인간적 소통의 계기는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중국 대학생들이 매우 아름답고 음악적이라고 느꼈다는 학생도 있었다. 최근 일어나는 한류의 붐도 이런 기본적인 정서적 이해를 공유할 때 포말처럼 사라지지 않고 지속 가능한 붐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시낭독회에서 들었던 한국어가 매우 아름답고 음악적이라고 느꼈다는 학생도 있었다. 최근 일어나는 한류의 붐도 이런 기본적인 정서적 이해를 공유할 때 포말처럼 사라지지 않고 지속 가능한 붐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것은 중국 대학생들의 진지한 경청의 자세였다. 중국의 미래가 아주 밝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려웠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일본의 총리가 자주 역사 왜곡 발언에 앞장서는 것은 그들의 막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아주 대조적이었다.

社說

5·18 부실 기술 역사교과서 바로 잡아야

중학교 역사교과서 상당수가 5·18 민주화운동을 서술하는 대목에서 계엄군의 발포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18 당시 사상자 규모를 기술한 교과서는 아예 없다고 한다. 중학생들이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 박해자 의원(광주 서구 갑)이 21일 중학교 역사교과서 17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계엄군이 시민에게 발포한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한 교과서는 5종에 불과했고, 희생자와 부상자의 현황을 밝힌 교과서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5·18 당시 신군부가 언론통제와 교통차단을 했다는 사실을 적은 교과서는 4종에 그쳤다.

교과서 7종은 ‘5·18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등의 역사적 의의를 명확히 평가하는 대목을 넣지 않았다. 2012년에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9

종 가운데 3종은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2011년 5월)된 사실도 빠뜨렸다. 계엄군의 ‘폭력 진압’도 모호하게 기술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과서 발행처의 5·18에 대한 역사 인식이 이 정도이니 극우주의자들의 왜곡과 폄하가 날뛰는 것은 물론 5·18 정신이 바로설 리 없다. 정부가 5·18에서 비롯된 민주화를 인정하고, 국가기념일로 행사를 치르는 마당에 역사교과서조차 부실 투성이라면 그야말로 국가정체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5·18 실체와 의미, 정신이 담기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과서 발행처도 역사교과서답게 5·18 민주화운동을 그 실체에 맞도록 서술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부터 그 역사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한 민주정부라면 역사교과서 바로잡기부터 나서야 할 것이다.

광주경찰 장기 미제 전담팀 허울 뿐이라니

광주경찰이 사회적 관심을 끈 살인사건을 해결하겠다고 ‘장기 미제 중요 강력사건 전담팀’을 꾸렸지만 1년여를 허송하면서 생색내기 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0건의 살인사건 수사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 전담팀은 그동안 용봉동 여대생 알몸 테이프 피살 사건(2004년 9월 14일), 내방동 임산부 피살 사건(2001년 9월 4일), 동구 60대 노인 둔기 피살 사건(2008년 10월 19일) 등 10건을 선정, 수사를 해 왔다.

하지만 사건 당시 10명이 넘는 인원으로 수사본부를 차리고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고작 2명에게 맡겨 새로운 증거 확보는커녕 대부분 서류검토조차 못했다고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일부 사건은 잘못 작성된 기록을 갖고 수사를 하고 있어 진정으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 지조차 의문이 든다. 이 정도라면 어떻게 경찰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물론 장기 미제사건, 특히 살인사건

은 발생 15일이 지나면 해결이 어렵고, 2명의 수사관이 12시간 넘게 매달려도 사건 자료 분석에만 한 달이 걸린다고 한다. 과도한 업무량을 감당하느라 과감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경찰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완전범죄를 만들어주는 부실 수사는 어떠한 경우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한 흉악범죄는 반드시 범인을 잡아내 단죄해야만 한다. 그제 범죄 재발을 막고, 사회의 안녕을 지키는 기본 가치인 것이다.

광주경찰은 올해 안에 전담팀을 정식 직제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정도로는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다. 더 이상의 생색내기용 수사를해서는 안 된다. 장기 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전담팀을 보강해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시민들이 경찰을 믿지 못하는 치안 불신사태는 막아야 한다.

의료칼럼

치료 편리해진 만성 B형간염



한정렬  
내과원장

인정받기 위해 몸을 혹사해야며 일을 해오던 그녀는 최근 들어 쉽게 피로해지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고 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간염증세일 수 있다는 글을 보고 대학생때부터 B형간염을 보균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 상태가 격정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진단결과 만성 B형간염이 진행돼서 ‘간경변증’까지 와 있는 상태였다.

일단 만성 B형간염이 진행되면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서서히 간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간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고 흉터 조직이 생겨 간의 정상적인 기능과 재생능력이 저하되는 간섬유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만성B형간염치료는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해 간 내 염증을 완화하고 간경변증 및 간암과 같은 중증질환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한국 간염환자의 74.2%가 B형간염 바이러스가 원인인므로 만성 B형간염을 진단받았다면 정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치료할 시기가 되

면 바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의 치료방법은 간 손상을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다. 생각해보면 질환의 자연경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경구용 B형간염 바이러스 억제제가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 덕분에 간 손상을 줄이고, 간경화로의 진행이나 간암으로의 진행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환자들에게서 치료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는 곧 약을 써도 바이러스가 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성질환인 특성상 치료제를 평생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치료중 내성이 생기면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었다.

다행히 최근 만성 B형간염 치료 트렌드는 매우 희망적이다. 가장 최근에 개발된 신약은 6년간 내성을 0%를 입증하는 수준에 이

르렀다. 또한 신약을 통해 만성 B형간염의 진행으로 딱딱하게 굳어진 간경변을 다시 부드럽게 되돌릴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 ‘랜셋’에 발표되기도 했다.

치료 5년 후 4명 중 3명은 더 이상 간경변 증환자가 아니었다. 이는 곧 간암으로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게다가 투약도 공복 여부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는 약이 개발돼 거의 평생 동안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의 불편함을 크게 줄였다.

만성 B형간염의 치료환경이 더욱 희망적으로 변하고 있다. 필자는 환자들의 마음속에라도 이러한 희망이 전해지길 바란다. 아무리 좋은 신약, 치료법이 개발되어도 환자의 치료의지가 없다면 이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꾸준한 관리와 적극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만성 B형간염 환자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기고

빛고을문학촌, 사직공원에 조성하면 안 되나?



유순남  
수필가

세웠고, ‘박경리 문학관’ 역시 굵이굵이 산길을 돌아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산허리에 꾸렸다.

또 별고는 대부분 산이 그의 소설의 배경이 된 ‘조점대 문학관’을 산 초입에 세웠고, ‘흔불문학관’ 역시 최명희의 소설 ‘흔불’의 배경이 되었던 남원 산촌에 마당 넓은 집으로 지었다. 하루에 두 번씩 소나기를 뿌려주는 경기도 양평의 ‘황순원 문학촌’도 누구나 한뼘쯤은 있을 법한 첫사랑의 추억 같은 그의 작품 ‘소나기’의 주인공의 입을 빌려 북한이 고양인 그가 고향으로 삼고 싶다는 그곳에 집을 지어 주었다. 얼마 전 다녀온 대전문학관도 도심가의 산 입구에 있었다.

그래서 문학기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문인과 그들의 작품뿐만 아니라 그곳만의 독특한 자연경관과 바람 그리고 나무 한그루 풀 한 포기 까지도 문인들과 의미를 부여하려 하며 함께 추억하려한다.

그런데 소위 문화예술의 도시라는 광주에

서 문학인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숲 막히듯 뿔뿔한 빌딩 숲 속의 건물에 문학관을 만들려는 발상을 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 ‘빛고을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도 문제지만 나는 시청 관계자들이 더 문제라고 본다. 공무원들은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 많은 예산을 들여 해외 벤치마킹을 한다. 문학관을 지으려면 타 문학관을 직접 가보든지 아니면 최소한 인터넷 검색이라도 해봤다면 그런 곳을 택하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일 다른 문학관들이 정말 좋은 산이나 작가와 인연이 있는 마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런 곳을 택하려 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지 비리의 진위는 밝혀지리라고 생각하고, 차체에 부지의 위치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생각하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오랫동안 잠을 자고 있는 사직공원을 추천하고 싶다.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경관은 말할 것도 없고 넓은 부지와 오밀조밀한 산책로 사이

에 건물을 들인만한 공간들이 많다. 팔각정도 있어서 문학촌 뿐 아니라 광주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게다가 ‘가을 날’의 시인 김현승 시비가 있는 호남신학대학도 바로 옆에 있고 광주기독교 유적지와 양림동 고택들도 가까이 있어 여행자들이 덤으로 이곳저곳을 둘러볼 수 있어서 여행의 동선을 즐기면서 효과는 배가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문학촌 구성도 시와 소설 아동문학 수필 등 장르별로 따로 그리고 종합관도 만들고, 광주 문인단체관도 만들어 그곳에서 문학강연이나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문학작품도 한번 쓰면 고칠 수 없게 풀에 새기지 말고 재울 또는 계절에 따라 작품을 바꾸어서 자주 가도 늘 새롭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모두들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계획을 세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고을문학촌’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無 等 鼓

일본 극우정치인들이 연이어 ‘망언 릴레이’를 벌이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위안부가 필요했다”는 망언으로 논란이 된 일본유신회 공동대표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은 연이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제2차 대전 이후 베트남전에서 한국군 이든, 모두가 전쟁터의 성 문제로 여성을 이용했다”고 해 파문을 키우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와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가 같다고 말해 한국·중국 등으로부터 역사 왜곡에 대한 집중 포화를 받고 있다.

진정 이들이 역사를 몰라서 이러한 망언을 쏟아내고 있을까? 극단적 극우로의 회귀를 위한 발원들이라면 이들의 심각한 ‘역사 불감증’에 대해 분노보다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의 역사 불감증도 이들 못지 않은 데에 있다. 최근 서울 시내 10대 중·고등학생, 20대 대학생, 30대 초·중반 시민 121명에게 근현대사에 대한 간단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가관이다.

이 질문에 모두 대답한 사람은 10%

도 되지 않았고, 모두 틀린 사람은 84%로 무려 70% 달했다. 하지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시절 꾸준히 배웠던 60~70대 세대는 웬만한 문제에 막힘이 없이 대답했다고 한다.

‘야스쿠니 신사가 뭐지 알아요?’에 대한 물음에 “우리나라 사람이 천황한테 숭배하는 것. 세배. 세번 절하는 것”이라고 아무렇게도 답했다. 수능에서 한국사가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아예 한국사 공부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 시점에서 당연한 귀결이 아닐까. 일본은 역사를 뿌리째 흔들고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역사의 개막이 되고 있더니 두려움이 앞선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 청소년들의 심각한 역사 불감증에 대해 분노보다 경계하고, 대비해야 한다. 일본의 행태에 대해 비분강개하고, 울분을 토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의 국적을 바로 세우고 자존을 세우는 일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교육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역사 불감증



한탕주의 아닌 건전한 복권문화 정착돼야

동창회, 회사모임, 계모임에 가면 적잖은 화젯거리 중 하나가 바로 복권이야기다. 로또부터 시작해 요즘은 스포츠 토토까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복권이 넘쳐난다. 정말 복권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복권은 무엇보다도 사행심을 부추기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시내 복권방에 가면 소위 대박을 노리고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복권은 한번 당첨됨으로써 인생역전이라는 그런 기회가 한번 올 수 있다는 기대심리에서 그러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당첨되면 매달 500만원씩 20년간 받는

연금복권은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한다.

그래서인지 언론에 보도된 복권 판매액을 보니 올해 상반기 복권판매액은 1조4000억원정도나 되었고 이대로 가면 올해 복권의 총 판매액은 3조원 가까이 될 거라고 하니 상상이 안 간다. 거의 전문화적인 숫자가 아닐 수 없다.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어 서민들이 희망을 기대하고 복권을 사는 것이니 무작정 사행심 조장이라고나 일확천금을 꿈꾸는 허황된 일이라고 비판만 할 수는 없다. 아무리 발버둥치고 일을 해도 좁게 생활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 복권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심리가 작용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OECD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많으면서 국민의 행복지수는 최저인 이 황당한 사회구조를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그 때문에 사람들이 복권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는 헛된 기대심리에 불과하다고 해도만 하겠는가.

국민들이 복권에 매달리는 진정한 이유에 대해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복권에 올인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단순한 즐거움으로 생각해 심심풀이로 구입하는 정도가 되는 사회가 올바른 것이다. ▲이종섭·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광고매케팅부 2200-661 (F A X 227-9500) 디 지 인 실 2200-536 사 회 부 2200-616 (대표 FAX 222-4267)	문 화 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세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